

물리적 공간을 넘어 사회적 환경을 바꾸다: 프랑스의 마유1- 멕퀴흐 도시재생사업

추민아

까바농 벡띠깔(Cabanon Vertical)
공간디자이너

함께 만드는 새로운 도시

1950년대 프랑스에는 저렴한 자재들을 이용해 단기간에 건설이 가능한 대규모 주택단지들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섰다. 이는 전후 도시 복구 문제와 함께 베이비붐 세대로 급격히 늘어난 인구와 북아프리카 이민자들의 대거 유입에 따른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었다. 그러나 ‘그항 앙상블(Grands Ensembles)’이라 불리는 이 단지들은 특정 사회계층의 밀집과 외부 도시공간과 단절 같은 사회적 문제를 불러왔다. 결국 1973년 프랑스 정부가 500가구 이상의 주택단지 건설을 금지하면서 그항 앙상블은 공식적으로 건설이 중단되었다.

이는 프랑스 정부가 주택 공급 문제만큼이나 주거환경 개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도시계획의 방향성을 재검토하는 계기가 되었다.

1983년 정치인 위베르 뒤부드(Hubert Dubeud)가 작성한 ‘함께 만드는 새로운 도시’ 보고서는 도시정책의 기본적인 토대를 제공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개인이 아닌 지역 단위로 사업지를 선정하고 지원을 집중하는 긍정적 차별이라는 새로운 개념과 주민참여 프로그램 개설이었다. 이듬해 뒤부드의 보고서를 기반으로 지원이 필요한 170개 지역이 선정되



1950년대 말 사흐쉴에 지어진 그항 앙상블

출처: <https://www.leparisien.fr/val-d-oise-95/les-grands-ensembles-au-cinema-du-symbole-de-la-modernite-a-celui-de-la-misere-18-11-2019-8195571.php>

었고 재생사업이 개시되었다. 이는 1970년대까지 이어진 대규모 개발 위주의 도시정책에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을 알리는 첫 번째 사업이었다. 초기에는 대규모 주택단지나 노후주택 밀집 지역, 실업률이나 인구감소율이 심각한 곳 등으로 분류해 지역을 관리하였지만, 이러한 기준은 2014년부터 오로지 소득에 따른 ‘도시정책 우선 지역(Les Quartiers Prioritaires de la Politique de la Ville)’으로 개편되었다.

프랑스 도시재생사업의 총괄 기관, ANRU

2003년 프랑스 정부는 ‘도시정책 우선 지역’의 사업을 총괄하는 ‘도시 혁신 국립 기관(Agence Nationale pour la Rénovation Urbaine: ANRU)’을 설립하였다. ANRU는 공공기관, 지역단체, 사·공기업 등 다양한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주택단지와 공공인프라 등 전반적인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지시·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ANRU는 설립과 동시에 ‘도시혁신 국가계획(Le Programme National de Rénovation Urbaine: PNRU)’을 수립하고 2004년부터 2020년까지 총 600개 지역에 사업을 시행하였다. 그리고 2014년, 기존 계획을 보완한 ‘신도시재생 국가계획(Le Nouveau Programme National de Renouvellement Urbain: NPNRU)’이 시작되었다. 2030년까지 450개 지역에서 진행될 이 사업은 기존의 주거 및 공공시설 정비에 더해 지역의 사회적 통합을 목표로 더욱 포괄적인 비전을 제시하였다. 또한 지역에 가장 적합하고, 주민들의 실제적인 의견을 수용한 사업안을 찾기 위해 주민 참여에 더 높은 비중을 부여하였다.

사회적 변화가 우선시되는 마유1-멕퀴흐 재생사업

프랑스 남부에 있는 도시 미라마스(Miramas)의 북쪽에는 재생사업이 시급한 사회주택단지들이 대거 밀



마유1과 멕퀴흐 지역의 전경

Adéus

집되어 있다. 그중 마유2(Maille2)와 마유3(Maille3) 지역은 PNRU 사업의 일환으로 2016년 재생사업이 마무리되었고, 그 바로 남쪽에 자리 잡은 마유1(Maille1)과 멕퀴흐(Mercure) 지역이 NPNRU 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재생사업이 진행 중이다. 미라마스는 물리적 접근을 통한 ‘건축’의 문제에서 벗어나 더욱 광범위한 시각으로 ‘도시’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 사회학자 그룹 아데우스(Adéus)를 총괄팀으로 임명하였다.

아데우스는 지역에 보다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물리적 공간보다 주민들의 사회적 환경을 우선시하는 사회적 도시재생사업을 기치로 내걸었다. 이는 삶의 질 향상부터 주민들의 교육, 직업활동, 건강, 복지와 같은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문제들을 시발점으로 삼아 도시공간의 변화를 꾀하는 접근법이다. 총괄팀은 기존 재생사업에서 주로 차용하는 건축가, 도시학자, 엔지니어와 같은 전문가들의 작업에 더해 지역과 연관된 다양한 주체들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총괄팀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200여 명의 주민을 동원해 30여 번에 걸친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총4단계로 진행된 프로그램 중 ‘진단’으로 명명



주민참여 프로그램 '진단' 단계에서 진행된 찾아가는 주민간담회



주민참여 프로그램 중 '전망' 단계



주민참여 프로그램 중 '계획' 단계



주민참여 프로그램 중 '계획' 단계에서 도출된 구상안들

한 첫 번째 단계는 지역 탐방, 찾아가는 주민간담회와 같은 방법으로 총 20번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공공장소·공공인프라·교통·직업활동·주택 및 주거·지역 공동체라는 여섯 가지 주요 쟁점을 발견하였고, 향후 프로그램에서 이를 위주로 논의를 발전시킬 수 있었다. 두 번째 단계인 '전망'은 다른 사업들의 예시를 함께 분석하며 주민들이 겪는 일상의 문제들을 공유하고 그들의 요구를 구체화하는 워크숍이었다. 세 번째 단계인 '계획'은 이전 과정에서 대두된 문제들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축소 모형을 이용해 주민들의 제안을 즉석에서 실험해 볼 수 있었다. 마지막 단계 '설계'는 제시된 방안들의 타당성을 전문가들과 이해관계자, 주민들이 모두 함께 검토하고 공유하는 자리로 이루어졌다.

마유1-백퀴흐 재생사업의 주요 쟁점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마유1-백퀴흐 사업은 구체적인 쟁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우선 오늘날 주민들의 주거 형태와 맞지 않는 획일화된 구조와 크기, 낙후된 내부 시설과 같은 주택 문제가 가장 많이 논의되었다. 이어서 녹지가 부족한 지역 내 공공장소가 문제로 떠올랐고, 이는 공공장소가 지역과 외부 도시를 연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논의로까지 확장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교통 시스템의 문제와 맥을 같이하는데, 타 지역을 왕래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 효율적으로 설계되지 않아 지역의 고립을 가중시켰다. 원만한 교통순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내부 구조도 재생사업에서 다루어야 할 과제 중 하나로 대두되었다. 또한 교육·복지·생활체육 등을 위한 공공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며, 이러한 인프라가 지역사회 내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지역성·다양성·접근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이 외에도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밀집된 마유1-백퀴흐 지역 주민들의 직업활동 장려와 지역 경제력 향상 문제도 논의되었다.

이와 같은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주제들과 함께 총괄팀은 ‘함께 만드는’,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사업을 표방하기 위해 재생사업 계획에 두 가지 목표를 추가하였다. 하나는 ‘건강을 위한 도시계획’이고, 또 하나는 ‘친환경 동네’이다. 전자는 생활체육과 건강한 식재료 소비를 통해 주민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하고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주거환경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목표와 부합하는 사업을 구상하고 실행하기 위해 공공보건학교와 같은 외부 기관과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후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선정되었다. 건물 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장소에 녹지를 늘리는 실천적 비전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사회적 유대감 형성까지 친환경 동네의 범주에 포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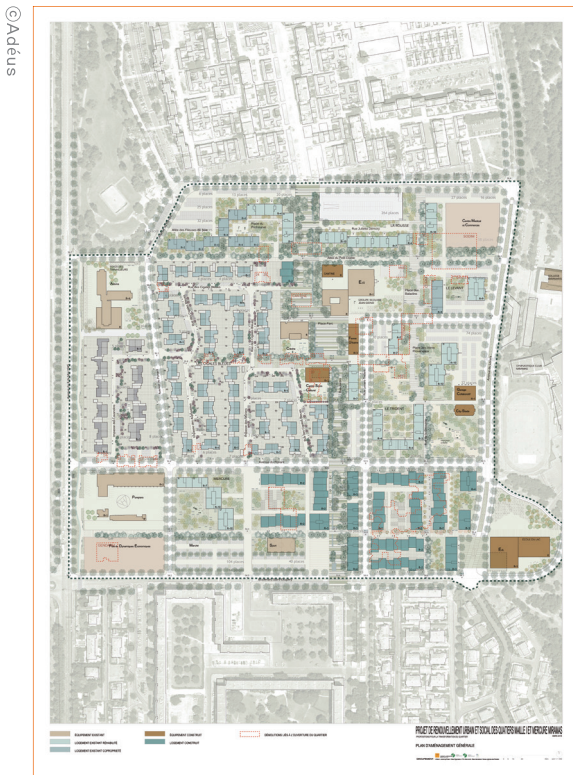
공공장소로 만드는 새로운 구상안

마유1-멕퀴흐 재생사업은 작은 마을 규모의 공동체를 형성하며 마을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한편 지역의 전체적인 연결성과 순환성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공공장소이다. 총괄팀은 사업 구상안이 건물들이 어서지 ‘얇은’ 공간들의 재발견과 정비에 달려 있다고 소개한다.

총괄팀은 가장 먼저 마유1-멕퀴흐 지역을 북에서 남으로 관통하는 중앙로를 재정비해 지역의 척추 역할을 할 공공장소를 조성하기로 하였다. 주민들의 만남의 장소이자 쉼터, 산책로가 될 중앙로는 도로 형태를 띤 정원이자 정원처럼 만들어진 도로로 조성될 예정이다. 중앙로는 마유1 동네 가운데에 놓일 중앙광장을 관통하는데, 중앙광장은 학교·보육원·사회복지관·도시농장 등과 같은 공공인프라가 모인 곳으로, 지역의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이와 함께 각 동네에는 소규모 공원과 광장이 들어서 주민들의 거주 공간과 더욱 밀접하고 친밀한 공공장소를 형성할 것이다. 중앙로와 중앙광장이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거시적 관점의 공공장소라면, 각 동네에 들어설 소규모 장소들은 동네의 단독성과 개별적 커뮤니티를 가능하게 하는 공간이다. 또한 흐름을 방해하는 건물을 철거해 지역 내 원만한 이동 경로를 확보하고, 학교·의료·상업·체육 시설을 지역의 외곽으로 이전해 지역의 확장성과 외부 도시와의 연결성을 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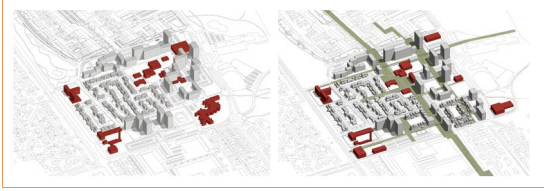
앞으로의 진행 과정

전반적인 청사진이 결정된 마유1-멕퀴흐 재생사업은 현재 구체적 실행안을 기획하는 단계에 있다. 특히 외부공간 조성 계획과 구체적인 실행 과정을 구상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미라마스시와 총괄팀은 지난 2021년 민간 건축·조경회사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였다. 이 공모에서 주목할 만하였던 점은 공모에



마유1-멕퀴흐 재생사업 최종 구상안

©Ade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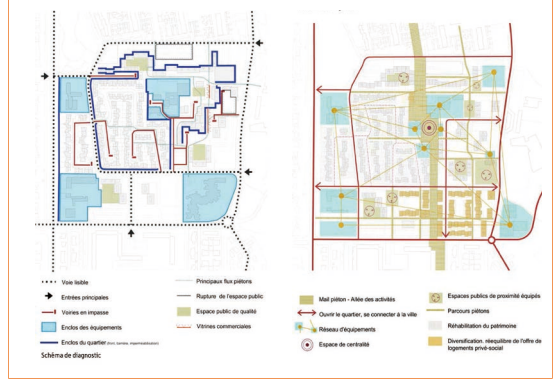
사업 전후를 보여주는 조감도(신축, 철거, 보수가 예정된 건물들은 붉게 표시)



현재 거리 모습과 중앙로 조성 후 예상 이미지



현재 거리 모습과 중앙로 조성 후 예상 이미지



사업 전후 지역 내 이동 경로와 연결성을 보여주는 도식

참여하기 위해 건축·조경뿐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의 보건문제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전문가들로 팀을 구성해야 하며 트랜지셔널 어버니즘(Transitional Urbanism)*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이였다. 공모를 통해 선발된 팀은 총괄팀과 지속해서 교류하며 향후 3년에 걸쳐 지역 내 공공장소 재정비 사업을 진행한다.

마유1-맥퀴흐 재생사업이 주는 시사점

첫째로, 건축학적 접근 이전에 사회학적으로 도시 문제를 해석하고 해결하고자 하였다. 마유1-맥퀴흐 사업은 사회학자가 계획한 구상안을 건축가가 실현하는 색다른 순서를 따르고 있다. 이는 도시를 물리적 구조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다양한 사람들의 삶이 공존하는 사회적 공간으로 이해하였다는 점에 서 의미가 크다.

* 트랜지셔널 어버니즘은 도시계획에서 최종 사업을 확정하기 전, 해당 장소에 가장 적합한 사업을 찾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가능케 하는 과도기 단계를 말한다. 또한 참여형 어버니즘을 표방하며 모든 과정에서 주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그 구체적인 방법론이다. 이는 근래 프랑스의 도시재생사업에서 주목받고 있는 접근법으로, 1970년대부터 프랑스가 추구해 온 '함께 만드는 도시'를 위한 진보적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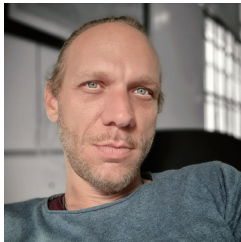
둘째로, 사업의 영향력은 대상지 내에 국한되지 않고 외부공간으로 연결·확장된다. 도시공간이 서로 연결되고 원활한 순환이 이루어져야 건강한 도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도시 일부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셋째로,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독려하며 주민들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었다. 프랑스 도시 사업의 발전은 주민들의 참여도에 비례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프랑스는 오랜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주민참여의 중요도를 높여 왔다. 이

과정 중 다양한 방법론이 시행되었고, 마유1-멕퀴흐 사업에서 사회학자의 개입을 통해 주민참여가 극대화된 것을 볼 수 있다.

넷째로, 민과 관이 협력하여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협력체를 구성하였다. 주민들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주요 비전으로 제시한 ANRU와 사회학자를 적극적으로 영입한 시 자체는 환경·보건·복지·문화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오늘날 도시의 규모와 구조가 복잡할 만큼 그에 대한 접근 또한 다각화되어야 한다.

**아데우스
막상스 모헤토
(Maxence Moréteau)
인터뷰**



마유1-멕퀴흐 사업의 특징과 시사점 등을 보다 면밀히 이해하고 전달하기 위해 지난 5월 말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아데우스의 막상스 모헤토(Maxence Moréteau)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Q 기성 도시재생사업의 지휘관들은 주로 건축가나 도시학자들이었다. 사실 사회학자가 지휘하는 도시재생사업은 낯설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마유1-멕퀴흐 사업이 더욱 흥미로웠다.

A 마유1-멕퀴흐 사업이 특별한 것은 미라마시시가 적극적으로 사회학자를 사업에 영입하려 하였다라는 점이다. 그들은 이 사업의 쟁점이 사회적 쟁점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고 사회학적 접근을 통해 도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우리는 사회학자로서 주민들과 시 자체, 임대업체, 건축가들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서로 다른 목적과 비전을 서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야 하고, 그 사이에서 합의점을 찾기 위해 모두를 설득해야 한다.

Q 사회학자로서 재생사업에서의 역할을 이야기하였다. 사회학자로서 가질 수 있는 강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A 우선 사회학자는 사업을 물질적으로 구체화하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 건축가는 구상과 설계를 하고 이를 실제로 구현하는 작업을 하는 직업이다. 작업의 최종 결과는 물질적으로 드러나야만 한다. 주민들과 함께 도시를 구상한다는 것은 결국 그들의 영역 또는 그들의 권한을 주민들과 나눈다는 이야기이고, 이는 곧 도시사업에서 건축가들 자신의 영역을 좁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도시재생사업에서 건축가들이 갖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 사회학자의 강점이다. 사회학자는 사업에 연관된 모든 관계자가 평등한 관계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 사업이 특정 집단에 의해 좌우되지 않도록 힘을 분배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일이다. 우리는 특히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Q 목소리를 내는 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도록 하는 것은 쉽지 않을 텐데, 참여 프로그램에 꽤 많은 주민이 참여하였다. 어떻게 그들을 움직일 수 있었나?

A 참여 프로그램의 첫 단계는 거의 야외에서 진행되었다. 처음부터 주민들에게 사업 이야기를 할 테니 몇 시에 어디로 오라고 초대할 수는 없다. 주민들이 자주 다니는 길목이나

공원에 임시 사무실을 설치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았다. 시민단체들이 주민들을 데려오기도 하였다. 그 후 주민들과 나는 이야기를 주제별로 정리해 소책자를 발행하고, 불만 사항 중 가능한 것들은 바로 실행에 옮겼다. 주민들은 그들이 우리에게 할애한 시간이 구체적인 결과물로 나온 것을 보고 우리를 신뢰하기 시작하였다. 점점 많은 사람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그중 몇 명은 자진해 협의회를 구성하기도 하였다.

Q 주민들과 소통할 때 특별히 힘들었던 점은 없었나?

A 주민들과 함께 계획을 구체화하는 중에 주택 몇 개를 철거하기로 하였다. 그러자 그중 한 집의 주인이 버럭 화를 내기 시작하였다. 지금까지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하였는데 그 결과가 우리 집을 철거하는 것이냐며 소리를 질러댔다. 그날 일정이 끝난 후 그가 나를 찾아와 사과하였다. 아까는 너무 감정적이었지만 본인의 집이 철거되는 이유를 충분히 이해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사업이 이루어는 공공을 위한 목표와 이익을 숙지하고 있었고 그 필요성 또한 공감하고 있었다. 도시 재생사업에서 주민참여 프로그램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주민들이 사업의 당사자가 되며, 이에 대해 주인의식과 유대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Q 마유1-백퀴흐 사업에서 사회 통합과 도시의 연결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다. 이유가 무엇인가?

A 외부 도시와의 연결성을 확보하는 것은 ANRU가 사업을 지원하는 조건 중 하나였다. 프랑스의 도시재생사업에서 도시 공간의 연결성은 매우 중요한 쟁점이다. 사회 통합을 위해서 다양한 유형과 계층의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 마주치고 섞일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도시 공간은 단절되면 안 되고, 모두가 모든 공간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참고문헌

- 1 Mathieu, P. (2011). Comprendre la politique de la ville. RésO Villes.
- 2 Blaison, C., Rocher, L., Maffessoli, M. (2012). La politique de la ville en France : fondements, évolutions et enjeux. Observatoire Régional de l'Intégration et de la Ville.
- 3 L'Adéus groupe reflex. (2018). Projet de Renouvellement Social & Urbain "Maille1 Mercure" Document de Présentation du Projet. Métropole Aix Marseille Provence.
- 4 L'Adéus groupe reflex. (2016-2018). Livrets des ateliers collaboratifs. Métropole Aix Marseille Provence.
- 5 Épad Ouest Provence. Accord cadre d'études et de maîtrise d'œuvre paysagère et urbaine - Projet NPNRU Maille 1 Mercure - Ville de Miramas : Cahier des Clauses Techniques Particulières. 2021. Épad Ouest Provence.
- 6 도시 혁신 국립 기관(Agence Nationale pour la Rénovation Urbaine) 홈페이지 <http://www.anru.fr>